

2023. 3. 9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행정국 인사과

인사과장	김형래	2133-5700
기술인사팀장	이진숙	2133-5715
담당자	정운영	2133-572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서울시, 찾아가는 인사상담으로 직원과 '따뜻한 동행'

- '창의행정'은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것
- 시민 접점이 많은 사업소 직원의 고충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 기대
- 직원 인사상담, 기관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, 인사·후생복지제도 등 안내
- 3. 10.(금) 중부수도사업소 시작으로 월 2회 추진

- 서울시는 2023년 시 산하 사업소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찾아가는 인사상담」을 운영한다.
 - 사업소는 수도·물 생산·관리, 누수 대응, 수방·제설, 도로보수, 의료서비스 제공, 도시공원 관리 등 시민의 삶에 접점이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
 - 시 공무원 10,307명 중 53.2%인 5,480명이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으며('23.1월), 원격지·현장 교대 업무 등으로 인해 인사상담을 위한 본청 방문이 어려운 실정이다.
- 시는 “시민 입장에서 고민하면 그게 바로 창의행정”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당부에 따라,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주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 직원의 고충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확산이 그 첫걸음이라 보고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27일,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‘창의 리더십 교육’에 강연자로 나서, “ ‘창의행정’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.” 며 “시민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면 그게 바로 창의행정”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.

- 시는 3월 10일(금) 중부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사업소를 방문하여 개인 인사 상담은 물론 기관 운영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, 주요 시정가치 설명과 ‘창의행정’에 맞춰 변화된 인사혁신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.
- 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의 편의와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개별상담으로 진행하되, 현장에서 희망하는 직원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-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“ 「찾아가는 인사상담」 을 통해 시민과 대면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업소 직원 및 현장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해소하고자 한다” 며 “일선 공무원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창의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” 고 말했다.